

[오피니언]

다산포럼

염무웅



이념적 편견이나 현실적 이해득실을 떠나 맑은 마음으로 읽는다면 누구에게나 깊은 울림을 전해줄 거라고 생각되는 책이 권정선의 '우리들의 하느님'이고, 현기영의 '지상에 순기락 하나님'이다. 이 책들은 지난 여름 국방부로부터 불온서적 징지가 붙어 군부대 반입이 금지됐다. 현기영 씨가 한 인터뷰에서 농담삼아 말했듯이 검열 담당자가 더위를 먹은 턱인지, 아니면 국방부가 이명박 정부에 자발적인 코드 맞추기를 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폐오래 전에 출간되어 잊혀져가던 책을 그런 방식으로라도 언론에 다시 띠워주고 싶어서였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그 국방부가 최근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문을 보내어, 고교 교과서의 한국 근·현대사 서술 내용을 일부 고칠 것을 요구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 것들 중에는, 가령 제주도 4·3사건에 관하여 "공산당 조직이 배후에 있고 경찰 밭포는 군중 투석에 따라 시작됐는데, 밭포 사설만을 지적해 사건을 왜곡시키고" 있으므로 "대규모 좌익세력의 반란 진압과정 속에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도 다

수 헤생된 사건"으로 기술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경향신문, 9월 18일자)

우리 근·현대사는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들의 비명소리로 채워져 있다. 그 절정은 두말할 것 없이 6·25전쟁이지만, 전쟁 이전에도 이후에도 살육의 광기는 남북을 가리지 않고 이 땅을 끗빛으로 물들었다. 4·3사건은 그 시발점이었고, 전쟁 발발 직후 남한 전역에서 자행된 좌익의자 집단학살은 아직 진상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판 마타하리'라는 언론의 명명 속에 간첩죄로 처형된 김수임 사건은 워낙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요소가 많았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밝혀진 셈이다. 그런데 최근 AP통신은 '여간첩 김수임 사건의 조작 의혹'을 새삼스레 보도하고 있다. (인터넷 조선일보, 8월 18일자) 통신에 따르면, '최근 비밀이 해제돼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입수한 1950년대 비밀자료 기록들을 분석한 결과' 김수임에게 죄워진 간첩이자 혐의는 대부분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의 또 다른 예는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는 임화의 죽후이다. 그는 일제시대의 좌익문예단체인 카

그러나 임화의 소위 법정진술을 읽어 보면 그가 단순히 정치적으로 배제한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과별의 상황으로 내몰렸음을 실감할 수 있다. 검사는 심문한다 : "일제시대에 피고가 해 왔던 문학운동은 계급적 문학운동이었던가?" 임화는 답변한다 : "아닙니다. 그것은 일제의 어용문학이었습니다."

대체 이런 문답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임화의 답변은 절망적 자포자기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극도의 공포감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내용을 뺀 것일 수도 있으며, 반대로 명백한 허위를 말함으로써 후일의 역사를 위해 법정 전체의 험구성을 입증하는 알리바이를 남긴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든 임화의 이러한 죽음은 그의 치열한 삶에 합당한 품위있는 등장물은 아니다.

지난 시대에 우리는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강제와 폭력에 순종하도록 길들여져 왔다.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억울한 죽음의 신음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 폭력을 행사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좌·우의 구별이란 다만 이념적 분식(粉飾)이거나 기만적 명분에 불과한 것 같다. 언제나 진실로 해방된 삶을 누릴 수 있을지, 아득하기만 하다.

〈문학평론가·영남대교수, 다산연구소 제공〉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슬픈 죽음들이 내는 '發信音'

로 고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경향신문, 9월 18일자)

프의 서기장으로서, 그리고 해방 후에는 조선문화가동맹의 중앙집행위원으로서 탁월한 조직적 역량을 발휘하였다. 1947년에 미군정의 탄압을 피해 월북했는데, 만약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아마 틸립없이 국문학자 김태준(金台俊), 시인 유진오(愈鎭五)와 같은 길을 걸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1953년 북한에서 정권전복 운동과 반국가적 간첩테러 행위 등의 죄목으로 총살형에 처해지고 말았다. 그가 박현영 계열의 핵심인물 중의 하나였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말이 전혀 뜻밖인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한국판 마타하리'라는 언론의 명명 속에 간첩죄로 처형된 김수임 사건은 워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최숙경



최근 승용차를 타고 우연히 광주시내의 한 웨딩숍을 지나갔다. 함께 타고 있던 아홉 살짜리 아들이 "웨딩드레스다. 광주옷 같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필자가 "너도 저런 옷 입은 사람과 결혼 할 거야?"라고 물자, 아들은 "결혼을 하려면 어른이 돼야지. 그리고 사랑을 해야 결혼하지"라고 답했다.

필자는 '사랑이 없는 결혼은 무의미하다'는 아들의 말에 꽤나 감명을 받았다. 때론 결혼이 성(性) 폭력의 제도적 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의 성폭력행위 금지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엄연히 비친고죄로 분류돼 있다.

바로 보는 성(性)

는 이유다. 수년 전 아홉 살짜리 아들이 '섹시'가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다.

명색이 성교육 전문 강사인 필자가 당혹해 하는 사이 큰 아들이 "섹시"는 멋지다는 뜻이야"라고 말했고, 어린 아들은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말한 뒤 곧바로 돌아섰다. 좀처럼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큰 아들에게 '섹시'가 멋지다는 뜻이야?"라고 되묻자, 큰 아들은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섹시' 하다면 디 좋아하잖아요."라고 답했다.

당시 필자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망설이면서 아들을 바라 보다 '섹시'의 의미를 연령에 맞게 설명해 주었다. 수년이 지나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된 큰 아들은 '섹시'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다. 연령별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최근 우리는 언론을 통해 성을 폭력의 도구로 이용하는 파렴치범에 대한 기사를 자주 접한다. 특히 장애인 성폭

력에 대한 이들의 행위는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한다. '섹시'가 무슨 뜻이냐고 묻던 당시 살 수준의 직장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성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린하는 비 장애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누가 장애를 가진 사람인지 구분할 수도 없다. 무엇이 문제일까? 인간이 성적존재로 인정된다면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도 권리보장을 받아야 마땅하다. 성폭력특별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의 성폭력행위 금지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엄연히 비친고죄로 분류돼 있다.

바로 보는 성(性)

하지만 아직도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나 지원체계는 미흡하다. 특히 장애 아동의 경우 부모마저도 장애를 가진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위한 법적 보장 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 사회는 성을 상품으로 만들어 돈벌이에 이용하는 이른바 '성 산업'이 발달했다.

성을 사고 파는 것은 생멸을 사고 파는 것이나 똑같다. 성에 대한 소중함을 주장하는 일은 이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자라는 호소와 같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성은 자기 자신을 정립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사회에서의 젠더의 역할까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근본이 되고 있다.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소중히 여겨 우리가 차세대들에게 가르치듯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이라고 아우성 칠 날이 곧 오기 를 기대해 본다.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찰각! 동물 세상

악어 눈물의 진실



하지만 아직도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나 지원체계는 미흡하다. 특히 장애 아동의 경우 부모마저도 장애를 가진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위한 법적 보장 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 사회는 성을 상품으로 만들어 돈벌이에 이용하는 이른바 '성 산업'이 발달했다.

성을 사고 파는 것은 생멸을 사고 파는 것이나 똑같다. 성에 대한 소중함을 주장하는 일은 이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자라는 호소와 같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성은 자기 자신을 정립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사회에서의 젠더의 역할까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근본이 되고 있다.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소중히 여겨 우리가 차세대들에게 가르치듯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이라고 아우성 칠 날이 곧 오기 를 기대해 본다.

물론 학문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권위있는 학자의 말은 곧 진리가 될 수 있었겠지만, 체계가 잡힌 현재에 와서도 이상하게 이런 비과학적이고 다소 주장적인 고전의 이야기들이 걸려지지 않고 그대로 인용구로 널리 쓰이기도 한다.

악어는 큰 뼈를 삼킬 때 정말로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참고로 동물원에서는 작은 조각 뼈만을 먹기 때문에 그런 눈물을 거의 볼 수가 없어 아쉽다.

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까닭은 사람과 다르게 입을 움직이는 신경과 눈물샘을 자극하는 신경이 한 가지라서 그렇기도 하고, 바다악어(crocodile)의 경우는 바닷물이나 짠 음식물에서 걸려진 열류를 배출하기 위한 열류배출관이 눈물샘까지 이어져 있어 그렇기도 하다.

사람 역시 안면신경마비에서 회복되어 가는 단계의 환자들에서 간혹 눈물샘까지 신경이 연결돼 밥을 먹을 때 악어처럼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이렇듯 악어의 눈물은 위선도 자비도 아닌 그자 생리적인 현상일 뿐이다.

◇ 최종욱

광주우체국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무더운 날씨 냉장·냉동 소포를 포장에 각별한 주의를

장·냉동 소포우편물은 배달 전까지 냉장고에 보관후 배달하는 등 소포우편물 취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포 발송인이 접수 이전 단계에 유의하여 포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전복, 어류 등 수산물의 경우 반드시 스티로폼상자를 이용하여 아이스팩을 넣고 부드러운 얼음을 넣어야 할 때에는 반드시 두꺼운 비닐로 포장해 얼음물이 소포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올해 주수한 햇곡식이나 마른고추, 소금 등 부피가 큰 우편물의 경우 중량 및 부피의 제한(20Kg이내, 부피는 가로·세로·높이 140cm이내)이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길 바란다. ▲김성숙·광주우체국 운용실

친환경 장묘문화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을

공동묘지나 화장장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부터 일으킨다. 짙갈색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부터 혐오시설·기피시설, 심지어 어울리지도 않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까지 들이댄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공동 묘지 주변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었다. 가수 이브 몽탕과 에피프 피아프가 잠든 파리 페트리에스 공동묘지에는 그림을 그리는 학생과 한가롭게 신문 보는 노인들이 있었다. '묘지'라기보다는 '공원'이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짙갈색이 곤두박질치는데 프랑스는 폐쇄한 환경 덕분에 주변 짙갈색 다른 곳에 비해 더 높다는 사실이었다.

지도층도 솔선수범하고 있다. 드골과 미테랑 전 대통령은 고향의 공동묘지에 잠들어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국립묘지에 가보면 역대 대통령들의 묘역은 배구장이 몇 개나 될 만큼 크게 조성돼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묘지를 줄이고 화장해서 납골당하라고 요구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서 묘지난과 국토파괴를 줄이자.

▲전연희·광주시 동구 총장로2가

시설

U대회 유치 '재도전' 지역사회 힘 모으자

광주시가 지구촌 대학생들의 스포츠·문화 제전인 유니버시아드(U)대회

정밀까지 첨첨산중인 것이다. 재도전에 나선 만큼 U대회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시간은 많지 않다. 남은 7개월동안 관세를 정확히 분석,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전폭적 지원도 관건이다. 광주시 러시아의 작은 도시 카잔에 폐한 것은 대통령까지 나선 메가톤급 지원 때문이었다.

재도전에 반대하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U대회 개최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 및 광주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뢰성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투명한 유치 자금 모금과 집행내역 공개 등도 시민의 공감대를 넓혀 유치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단합이다. 광주시가 재도전을 결정한 만큼 소모적 논쟁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비판도 U대회 유치 성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다시 둥치는 '광주정신'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상에서 찾아야 한다. 광주·전남의 중소기업은 전체의 99%에 달하고 있다. 대기업은 열 손가락을 꼽기에도 힘들다. 지역의 경제 규모에 비해 중소기업이 난립하다 보니 경쟁이 심해지고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내실보다는 외형 위주의 기업 경영전략도 문제다. 이번 조사에서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생존 확률이 낮았다. 반면 총자산이나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은 살아남는 가능성이 높았다. 외형 성장보다는 경영혁신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중소기업의 생존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것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다. 경영 및 재정 건전성이 문제를 드러내 위기상황에 몰리는 것이다. 결국 호남권 중소기업은 창업 4년째에 위기를 맞은 뒤 10년을 전후로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세가 문화되면서 퇴출여부가 결정짓는 고민이 생겼다.

근본 원인은 지역내 산업구조의 취약

증권시장의 과잉투기를 늘 위험스럽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조급해진 그는 거물급 금융자본가들에게 투기 억제를 직접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 회자되고 있는 투기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과장되어 있다. 미국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한 편성을 구하고 있고 미래도 밝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비극적 사태'가 터지기 불과 5일 전인 19일 상황이었다.

전문가들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현재의 미국발 금융위기와 1929년 대폭락의 차이점을 이어从容자리로 하고 있다. 현재의 사태가 100년에 한번 있을 때를 사건이라는 듯이 바라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한 공통점은, 거짓과 펑크으로 가득한 금융자본가와 그들의 하수인들, 자정 금융자본가들이 빛어낸 참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한 공통점은, 거짓과 펑크으로 가득한 금융자본가와 그들의 하수인들, 자정 금융자본가들이 빛어낸 참사라는 것이다.

/기호 경제부장 kihh@kwangju.co.kr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榮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구·국제구독신청·배달안내) | www.kwangju.co.kr

편집국내부	사 회 2 부	2200-619	경 영 지 원 국	2200-51